

도내 농수산물식품, 북미·유럽 시장서 잇단 쾌거

전북바이오진흥원, 전북홍보관 운영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박차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전북 농수산물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10월 4~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애틀랜타 한인 축제'와 4~8일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ANUGA 2025 식품박람회'에서 전북 홍보관을 운영, 도내 유망 식품기업들과 함께 B2C·B2B 시장을 동시 공략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동남부 최대 규모의 지역 행사인 애틀랜타 한인축제는 현지 소비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대형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한인뿐 아니라 다수의 현지인 방문객이 참여해 높은 홍보 효과를 거두는 행사다.

이번 축제에는 익산의 팜조아가 참여해 고춧가루와 누룽지 등 전북 대표



식품을 선보였으며, 현장 시식과 판매에서 준비 물량 전량 완판 총 15만 달러 규모의 판매 성과를 달성했다. 현장 소비자들의 즉각적인 구매 반응은 전북 식품의 품질 경쟁력과 대중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독일 쾰른에서 열린 'ANUGA

2025'는 세계 106개국 7,5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의 바이어가 찾은 세계 최대 식품 전문 박람회다.

이번 행사에는 델탐, 고창황토배기청정, 씨엠에프엔비 등 도내 3개 기업이 참가해 총 75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 을 올렸다.

델탐은 기능성 음료 라인업을 선보이며 독일·프랑스 바이어들과 1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 클린 이팅(Clean Eating)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프리미엄 유통채널 입점 논의를 구체화했다.

고창황토배기청정은 고구마 말랭이 제품을 앞세워 독일·영국 대형 유통 업체와 35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 고물가 시대에 맞춘 건강 간식으로 주목받았다.

씨엠에프엔비는 해물 육수 기반 간

편식 제품으로 25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성사시키며, 유럽의 '스낵화(Snackification)' 트렌드에 부합한 HMR(가정간편식) 제품으로 높은 관심을 얻었다.

이은미 바이오진흥원장은 "북미와 유럽이라는 양대 전략시장에서 전북 농수산물식품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확인한 지리였다"며, "현지 시장 트렌드에 맞춘 제품 개발과 수출 지원, 후속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매출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해외 전시 성과를 토대로 바이어 후속 상담 모니터링과 현지화 패키지·라벨링 개선 지원,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연계 홍보 강화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미·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전략시장에 특화된 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속 확대해, 전북 농수산물식품의 해외시장 안착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해외 진출 '원스톱 지원' 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이 주관이 되어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전시회나 수출상담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을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 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舊 시장경영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등 4개 분야에 대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현재 전국적으로 80개 컨소시엄, 약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 중이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협력해 인공지능·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29개 기업이 중동 현지 20개 기관과 면담을 진행하는 '중동 진출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됐다.

내년부터 추진될 수출컨소시엄 사업의 주요 변경사항도 눈길을 끈다.

첫째, '유망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된 단체는 최대 3년 연속 지원대상으로 확정돼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오상근 기자

2026년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본격 추진

전북중소기업청, 문화관광형시장·시장경영지원 등 4개 분야 11월 7일까지 신청 접수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내년에 이어진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을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 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舊 시장경영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등 4개 분야에 대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징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 47곳 내외의 시장이 선정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자가진단을 통한 시장 유형 분류(△문화거점형 △관광연계형 △로컬커뮤니티형 △특산품연계형)를 의무화해, 시장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강화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기준이 '카드형 75%'에서 '디지털카드+모바일' 70%로 완화되어 우수한 시장의 참여 문턱이 낮아졌다.

시장경영지원사업은 시장경영패키지를 개편한 것으로, △경영자문 △상인

교육 △시장매너 △매출매너 등 4개 세부 분야를 중심, 전통시장과 상점가 302곳 내외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상인의 자생력 강화와 시장 운영의 전문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지역상품전시회는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 상품 및 특산품을 홍보·판촉할 수 있도록 10곳 내외를 선정하며,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는 한 해 동안 전국의 대표 시장들을 소개하는 오프라인 박람회로, 1곳이 선정된다.

신청은 소상공인24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관원,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20개소 적발

거짓표시 8개소 형사입건·미표시 12개소에 과태료 252만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0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농관원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18일간)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선물·제수용품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11개 반 28명이 투입돼, 제조·가공 및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세분화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개 업체는 형사입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개 업체에는 총 2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북농관원은 관련 법령(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 업체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북농관원은 추석을 맞아 전주산중안시장 등 도내 29개 전통시장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 확산에도 힘썼다. /오상근 기자

‘월급클럽’ 서비스 출시

전북은행,급여고객 전용 멤버십…등급별 혜택 등 경품 추첨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급여고객 전용 멤버십 서비스인 '월급클럽'을 출시하며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경쟁에 나섰다.

'월급클럽'은 매월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등급별 혜택, 랜덤 캐시백, 월별 경품 추첨을 제공하는 상시형 멤버십 서비스로, 단순한 급여 입금거래를 넘어 고객의 금융생활에 재미와 혜택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전북은행에 따르면, 고객은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며, 각 등급별로 매월 보너스 개념의 랜덤 캐시백이 지급된다. 또한 전월 급여를 받은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상당의 경품이 제공된다.

특히, 기존의 일회성 이벤트나 단기 프로모션이 아닌 상시 운영되는 멤버십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급여거래 고객에게 지속적인 만족감을 제공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북은행은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월급~속으로!' 럭키로렛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오는 11월 14일까지 전북은행 모바일 뱅크 '속뱅크'에서 참여 가능하며, '월급클럽'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고객이 룰렛을 돌리면 즉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11월 중 급여가 입금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추가 경품도 증정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월급클럽'은 지방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선보이는 급여고객 전용 멤버십 서비스로, 고객이 월급을 받는 순간부터 금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형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며,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급클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모바일 뱅크 '속뱅크' 앱 또는 고객센터(☎ 1588-44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2025 K-라이스페스타’ 참가업체 모집

전북농협, '농심천심' 우리술·쌀가공품 생산업체 참여 독려

전북농협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에 참여할 도내 양조장과 쌀가공업체, 지역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번 행사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개최된다. 농협경제지주가 주최·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농심천심(農心天心)'의 가치를 담아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쌀 소비 촉진의 장으로 마련된다.

모집 대상은 국산 쌀을 원료로 우리 술과 쌀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행사 기간 동안 △전시 및 판매 부스 운영 △바이어 상담회 △소비자 프로모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의 부스참가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다.

참가업체에는 3m×3m 규모의 기본 부스 사용료 전액과 함께 인포데이블, 의자, 전시테이블 등 기본 집기가 무상 제공된다. 또한 현장 판매 촉진을 위해 소비자화 생산자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 소비쿠폰 제도도 운영된다.

이정환 전북농협 본부장은 "전북농협이 추구하는 '농심천심(農心天心)'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쌀 가공 산업의 질적 성장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루겠다"며 "전북의 우수한 쌀 가공제품이 국민의 일상 속에 한층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